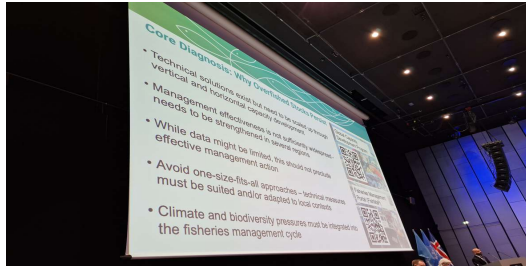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구 분	내 역						
출장자	소속	수산연구본부	성명	정명화	연구위원		
				박찬엽		직급	부연구위원
				조경준			연구원
출장목적 (중복선택 가능)	☐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 국제행사 주최		☒ 국제행사 참가		
	☐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 세미나, 교육, 훈련		☐ 기타 ()		
	○ 출장 목적 1. FAO SCFM 본회의 참석 - RFMOs 관할 외 공해(high seas) 수산에 관한 최신 국제 논의 동향과 회원국 입장을 파악 2. IUU 어업 관련 공해 비규제어업 논의를 위한 Side Event 개최 및 참여 - KMI를 비롯한 호주 울런공대학교, 상해 해양대학교, Global Fishing Watch, 일본 수산성 등 주요 어업국 유관기관, 대학 및 국제기구 공동으로 부대행사 개최 - 글로벌 거점 네트워크 구축의 일환으로, 학계·국제기구·NGO 간 연구 및 정책 논의를 연결하는 협력 플랫폼 구축						
관련사업 (예산항목)	「글로벌 해양수산거점 연구협력사업」(일반사업) (사업기간 : 2026.01.01. ~ 2026.12.31.)						
출장기간	2026.2.20.(금) ~ 2026.2.28.(토) (7박 9일)		출장지	아이슬란드(레이카비크)			
출장일정	일자	방문지	주요업무*	항공편 / 교통수단			
	2.20(금)	부산(7:55) → 인천(11:25) → 프랑크푸르트(17:20)	항공 이동	KE 1404(1시간 10분) KE 945(13시간 55분) ※ 연결편 문제로 경유지 (프랑크푸르트) 숙박			
	2.21(토)	프랑크푸르트(13:05) → 레이카비크(15:55)	항공 이동 숙소 이동	FI 521(3시간 50분) 렌트카 이용			
	2.21(토)	레이카비크 포스호텔	SCFM 사전 준비 회의, Side-Event 개최 준비 회의	렌트카 이용			
	2.22(일)	레이카비크 하르파 컨퍼런스 센터 (Harpa Conference Centre)					
	2.23(월)	레이카비크 하르파 컨퍼런스 센터 (Harpa Conference Centre)	회의 참석	렌트카 이용			
	2.24(화)	레이카비크 하르파 컨퍼런스 센터 (Harpa Conference Centre)	회의 참석 공해 조업국 간 업무협의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렌트카 이용			
	2.25(수)	레이카비크 하르파 컨퍼런스 센터 (Harpa Conference Centre)	회의 참석 KMI-ANCORS 업무협의				
	2.26(목)	레이카비크 하르파 컨퍼런스 센터 (Harpa Conference Centre)	회의 참석 Side-Event 개최	렌트카 이용			

	2.27(금) ~28(토)	레이카비크(7:25) → 프랑크푸르트(19:30) → 인천(+1, 15:05) → 부산(18:25)	항공 이동	FI 520(3시간 40분) KE 946(11시간 35분) KE 1407(1시간 10분)
출장성과	○ 주요성과 - FAO SCFM 본회의 참석을 통해 RFMO 관할 외 공해 어업 관리, 비규제어업 대응, 공해 거버넌스 강화 등 관련 최신 국제 논의 동향과 주요 회원국의 정책 방향 및 핵심 쟁점 사항 파악을 통해 해양수산분야 국제협력 대응을 위한 주요국 정책 분석 기반 확립 - 공해 비규제어업 관련 Side Event 공동 개최를 통해 학계·국제기구·NGO 등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향후 KMI 주관 국제 수산 세미나(비규제어업) 및 태평양 수산포럼 추진과 연계한 공동연구·정책 논의 협력 기반 확보			
향후계획	○ 출장 성과 공유 계획 - FAO SCFM 본회의 참석 및 Side Event 개최를 통해 파악한 공해 수산 및 비규제어업 관련 국제 논의 동향을 내부 연구·정책 검토 과정에서 공유하고, '글로벌 해양수산거점 연구협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국제 네트워크 및 논의 결과 활용 검토 - KMI 주관 비규제어업 세미나 및 태평양 수산포럼 등 향후 국제행사 추진 시 금번 출장에서 구축한 협력 네트워크와 국제 논의 동향을 반영하여 성과 공유 및 협력 기반 확대 모색 ○ 정책화 등 활용 계획 - 공해 어업 및 RFMO 관련 국제 논의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국가별 정책 방향 및 핵심 쟁점 분석 등을 정책 협의 및 대응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주요 대학·연구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를 기반으로 연구 네트워크 확대를 검토하고, 비규제어업 세미나 및 태평양 수산포럼 등 향후 국제행사 주제 선정 및 프로그램 기획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특이사항	없음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업무유형	☐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 국제행사 주최 ☒ 국제행사 참가 ☐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 세미나, 교육, 훈련 ☐ 기타 ()
업무①	2.22(일) SCFM 및 Side-Event 개최 준비 회의
수행계획	☐ 참여기관 연계 SCFM 세션별 주요 의제 및 주요 쟁점 사전 점검 ☐ 부대행사 일정 협의 및 기관별 역할 조정
수행결과	☐ SCFM 세션별 주요 의제 및 쟁점 사전 점검 - 공해상 비규제어업(high seas unregulated fisheries) 관련 논의 동향 공유 ☐ Side-Event 개최 준비 회의(시간, 역할 조정) - 행사 시간 75분(실질 70분)으로 제한된 점을 고려하여 발표 분량 조정 협의 - Info paper 프로젝트 취지 및 협력 필요성 설명, 주요 어업국 정책·규제 비교표 제시 - 공동좌장(Masanori Miyahara, Myeonghwa Jung) 환영, 소개(Quentin Hanich) ☐ 운영상 고려사항 협의 - 발표 시간 배분(각 10~12분 내외), 협력적 관리 체계 모색이라는 공통 결론 도출 - 협력 그룹 외 주요 이해관계 국가(아르헨티나, 영국 등) 및 옵서버 예상 질의 대응 점검  
업무②	2.23(월) FAO COFI 제2차 수산관리 소위원회(Sub-Committee on Fisheries Management) 1일차
수행계획	☐ (오전) FAO COFI SCFM Morning: 09.00~12:00 h (CET) - Procedures of the Session - Improving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fish stocks: lessons from effective management ☐ (오후) FAO COFI SCFM Afternoon : 14.00~17:00 h (CET) - Assessing and managing multispecies fisheries with emphasis on data and capacity-limited situations
수행결과	☐ (개회) 세션 절차 소개: Procedures of the Session - Opening: FAO 사무국의 개회 선언, 제2차 수산관리 소위원회 공식 일정 시작 회원국 대표단 및 국제기구, 옵서버 등 참석(KMI는 Side event 개최 자격으로 옵서버 참석) - 사무총장 개회사: 글로벌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과학기반 관리(Science-based management) 중요성, 해역관리 위한 국제협력 중요성 강조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의제1) 어족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 개선: 효과적인 관리의 교훈: Improving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fish stocks: lessons from effective management

- 어족자원 보존의 논의 배경

- ◆ 세계 해양 어족자원의 35.5%가 과잉 어획 상태 및 증가추세, 관리 공백 해소 필요성 강조 / 비규제어업은 관리체계 부재 또는 미흡에 따른 거버넌스 공백 문제로 설명 / RFMO 미설치 공해 수역 및 RFMO 존재하나 특정 어종·어업의 미관리 영역, 자료 부족으로 관리 조치가 유예된 어업 등을 주요 사례로 언급

- 국제 협력기반 대응 필요성

- ◆ 과학기반 관리, 법·제도적 틀, 모니터링·통제·감시(MCS), 예방적 관리 중요 / 비규제 상태를 위험요인으로 인식, 이를 관리체계 내로 편입하려는 국제적 논의 흐름 확인



- 국가별 주요 논의 내용

주요 의제 논의 사항
○ 과학기반(Science-based)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예방원칙(precautionary approach) 적용 및 불확실성 하에서의 관리 조치 필요성 강조 ○ 수확전략·수확통제규칙(HCR) 등 체계적 관리 수단의 중요성 인정 ○ 데이터 수집 및 자원평가 역량 강화 필요성에 대한 지지 ○ 모니터링·통제·감시(MCS) 강화 및 IUU 어업 대응의 핵심성 강조 ○ 지역수산물관리기구(RFMO)의 역할 및 국제협력 중요성 재확인
자원평가 기준의 보편화 및 최대지속생산(MSY) 방식에 대한 인식 차이 존재
○ (노르웨이·러시아) 생물학적 특성 다양하여 보편적·일률적 적용에 신중 ○ (일본) 단기 수명 어종 등 변동성 자원에 대해 MSY 중심 접근의 한계 지적 ○ (EU) 예방적 기준 적용 및 국제적 협력 및 조화 필요성 인식
관리절차(MP)·수확통제규칙(HCR) 확대 적용
○ (호주, EU, 영국, 뉴질랜드 등) 체계적 수확전략 및 사전 합의된 의사결정 규칙의 확대 적용 지지 ○ (일본) 관리 절차 도입의 비용·복잡성·이해관계자 이해 부족 문제 지적 ○ (러시아) 과학 기반 접근 지지하되 일률적 모델 도입에 신중
FAO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데이터·자원평가)
○ (호주, 인도, 필리핀, 세네갈, 아르헨티나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지 및 기술협력 요청 ○ (EU) 장기·대규모 프로그램의 자원 부담 및 기존 RFMO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 우려 제기 ○ (뉴질랜드) 지역기구 중심 구조 설계 필요성 강조
비규제어업 및 국가 책임 조치
○ (EU) RFMO 부재 또는 비규제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책임 조치 필요성 강조 ○ (영국) 실소유주 투명성 등 투명성 강화 수단 확대 강조 ○ (중국) 국가별 여건과 능력을 고려한 접근 필요성 언급 ○ (러시아) 국제기준의 보편적 적용에 신중 입장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의제2) 데이터와 관리 역량이 제한된 상황에 중점을 둔 다종어업 자원 평가 및 관리: **Assessing and managing multispecies fisheries with emphasis on data and capacity-limited situations**
 - 다종어업 자원 평가 논의 배경
 - ◆ 전 세계 어업의 상당수가 단일종이 아닌 다종·다어구(MSMG) 구조로 운영 / 동일 수역에서 다양한 어종·어구가 혼재되어 어획, 활용되므로 전통적 종별 관리체계 적용에 한계 발생
 - ◆ 종별 MSY·TAC 중심 관리방식은 혼획·다종 구조에서 현실적 제약 존재 / 자료·역량 부족 (Data & capacity-limited) 상황에서 다수 어업이 미평가(unassessed) 상태로 잔존
 - ◆ 이에, 국제사회는 자료 부족을 관리 유예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식 전환
 - 자원평가상의 도전과제(Assessment challenges)
 - ◆ 단일어종 모델은 산업적·대규모 목표어업에 주로 적합 / 연안어업은 소·중·대형 선박 혼재 및 동일 자원 대상 조업, 다수 어종 평가 필요로 단일종 접근 시 비용 증가 및 정확성 저하
 - ◆ 총생산모형의 경우 시기별 데이터에 따라 최대생산량 등 수준 상이 / 단순 MSY 중심 접근의 한계 지적, 생물 다양성, 고용, 노력당 수익 등 복합 목표 고려 필요
 - 어구 관련 기술적 문제(Technical issues: gear related)
 - ◆ 어구의 비선택성으로 다종 혼획 발생 / 어구 선택성 패턴 상이 및 시·공간별 어종 조합 변화, 혼획 특성으로 종별 규제 적용 곤란, 특히 열대 고생물다양성 지역에서 과학자료 한계 심각
 - 소위원회 제안 방향(Suggested actions)
 - ◆ 데이터·역량 부족 상황에서 다종·다어구(MSMG) 어업 관리 방안 모색 / 실용적·비용효율적 평가도구 개발 필요성 인정, 회원국의 관리 프레임워크 및 국가계획 수립 촉구 / RFBs(지역 어업기구) 및 RFMOs(지역수산물관리기구)를 통한 지역협력 강화 권장



- 국가별 주요 논의 내용

주요 의제 논의 사항
○ 다종·다어구(MSMG) 어업의 국제 어업에서의 보편적 구조임을 확인 ○ 단일종 중심(MSY·TAC) 관리체계의 다종·다어구 어업 적용 한계 인식 공유 ○ 자료·역량 제한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관리조치 필요성 강조 ○ 지표기반·경험적 접근 및 단순·비용효율적 관리도구 개발 지지 ○ 생태계 접근(EAF) 및 예방원칙의 MSMG 맥락 적용 필요성 인정 ○ RFMO-RFB 등 지역기구를 통한 협력 강화 필요성 재확인 ○ 디지털 수용성에 따른 국가별 의견 상이 인식(개발도상국 비용·접근성 문제 간접적 언급)
단일종 접근의 한계 및 다종 관리 전환 필요성
○ (브라질) 소규모·다종 어업의 생태·사회적 특수성 강조, 참여형·영토 기반 접근 필요성 제기 ○ (아르헨티나) 이분법적(과잉/비과잉) 자원평가 한계 지적, 다지표 체계 필요성 언급 ○ (아이슬란드) 단일종 틀로 포섭 곤란한 어업 존재 인정, 보완적·현실적 도구 개발 필요 ○ (노르웨이) 복잡한 정밀 단일종 모형보다 실용적·조정된 접근 필요성 강조 ○ (호주, 뉴질랜드) 기후변화로 인한 자원 변동성 증가 상황에서 단일종 기준점 의존의 한계 지적,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자원의 적응력을 고려한 관리 필요성 강조 ○(영국) 혼획종(bycatch) 및 비 상업어종 보호 및 기후변화 회복력 차이 고려 필요성 제기 관리수단 및 도구 개발 방향 ○(호주) 다종혼획 어업에 대해 단계적(tiered) 평가 및 사전 합의된 관리규칙 적용 사례 소개 ○(뉴질랜드) 정보수준에 따른 차등 관리체계와 어획량 변동에 기반한 trigger 관리 적용 경험 언급 ○(미국) 다종 어업관리계획(FMP) 운영 및 수확통제규칙(HCR) 적용 사례 공유 ○(캐나다) 다종 자원에 대한 통합적 관리체계 운영과 위험기반 접근 필요성을 언급 ○(EU) 생태위험평가(ERA) 및 참여형 관리계획 필요성 강조, 다종·다어구 관리에 대한 세분화된 접근(disaggregated analysis) 필요성 언급 ○(중국) 금어기 등 투입규제 기반 관리 사례 소개, FAO 주도의 toolbox 개발 지지 ○(몰디브) length-frequency 기반 평가 및 지표종 활용 사례 소개, 데이터 제한 상황에서 간이 평가 및 지표종 활용 가능성 언급 데이터·역량 제한 상황 대응 및 FAO 역할 ○(노르웨이) 데이터 수집체계 구축 우선 필요성 강조, weight-of-evidence 접근 확대 제안 ○(아이슬란드) FAO의 단계적 기술프로세스(4~6년) 추진 제안, 현실적·비용효율적 접근 강조, 대규모 신규 글로벌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신중 입장 ○(뉴질랜드) 온라인 toolbox 및 기존 stock assessment 개발사업과의 정합성 강조 ○(호주, 인도, 세네갈, 아르헨티나 등) 데이터 수집·자원평가 역량 강화 및 기술 지원 필요 ○(EU) 장기 대규모 프로그램 재원 부담 우려, 기존 RFMO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 문제
업무③	2.24(화) FAO COFI 제2차 수산관리 소위원회(Sub-Committee on Fisheries Mangement) 2일차
수행계획	□ (오전) FAO COFI SCFM Morning: 09.00~12:00 h (CET) - (계속) Assessing and managing multispecies fisheries with emphasis on data and capacity-limited situations □ (오후) FAO COFI SCFM Afternoon : 14.00~17:00 h (CET) - Managing fishing fleet capacity: status and way forward
수행결과	□ (의제2 계속) 데이터와 관리 역량이 제한된 상황에 중점을 둔 다종어업 자원 평가 및 관리: Assessing and managing multispecies fisheries with emphasis on data and capacity-limited situations - 논의 종합 ◆ MSMG 어업이 열대·아열대 지역에서 보편적 구조임을 확인 및 단일종(MSY 중심) 관리의 적용 한계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자료·역량 제한 상황에서 단순·비용 효율적 관리도구 개발 필요성 인식 ◆ 일회성 지침이 아닌, 지속적으로 보완·업데이트되는 온라인 ‘toolbox’ 개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대 - 국가별 주요 의견(추가) 추가 의견 ○(인도) 다종 현실 반영한 대체 기준점(proxy reference points) 마련 및 국가별 가이드라인 필요 ○(칠레) 형식적 다종 평가 대신 쿼터·구역관리·EMS 등 관리수단의 결합 적용 소개 ○(필리핀) MSMG 구조가 국가 어업의 주류임을 설명하고, 구역별 관리체계 운영 경험 제시 ○(세네갈) 다종어업 관리 미흡 시 어구·지역 간 갈등 발생 가능성 지적 및 공동관리 강조 ○(브라질) 소규모 다종어업의 사회·영토적 특수성을 반영한 참여형·생태계 기반 접근 필요 ○(뉴질랜드) 다종 기반 지속가능성 평가 및 온라인 toolbox 개발 지지 ○(아이슬란드) 모든 종 동시 MSY 적용, 비현실적 단순·강건한(cost-effective) 접근 필요성 강조 ○(EU) 어업 유형별 세분화(disaggregated) 접근 및 기술지침 업데이트 필요성 강조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캐나다) 전자모니터링(EM)-AI 등 신기술을 MSMG 관리도구 포함 필요성 제기
- (영국) 혼획종 보호 및 기후변화에 따른 종별 회복력 차이를 관리에 반영
- (호주) 기후변화로 인한 자원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는 적응적(adaptive) 관리 필요성 제기

□ (의제3) 어선선단 어획능력 관리: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 Managing fishing fleet capacity: status and way forward

- IPOA-Capacity 개요

- ◆ 1995년 CCRF 기반, 1999년 채택된 자발적 국제수산 규범 / 목표: 어획능력과 자원량 간 지속 가능한 균형 확보 / 기존 과잉능력 감축 및 신규 초과능력 발생 방지

- 글로벌 어선선단 동향 (1999-2022)

- ◆ 동력어선 33% 증가(아시아 39%+ / 비동력어선은 감소 추세이나 전체 어획능력 감소로 직결되지 않음 / 산업형 어선(대형·고마력) 급증, 평균 선박 길이·톤수·기관출력 지속 증가

- 데이터 및 보고체계 문제

- ◆ FAO 보고 선박의 44%가 길이 미분류 / 어업 유형 미기재 사례 다수 / ISSCFV 국제어선 통계분류 적용 미흡 / 글로벌 선단 비교 및 능력평가의 정밀성 부족

- IPOA-Capacity 이행 현황 (2024 설문)

- ◆ 40% 국가: 감소 보고 / 30% 국가: 증가 보고 / 58% 국가: 과잉능력 문제 인정
- ◆ 주요 조치: 제한 입어제, 선박수 동결, 공간·계절 폐쇄, 어구·마력 제한
- ◆ 기술발전으로 효율 증가 → 보이지 않는 어획 능력의 확대 우려
- ◆ 다수 국가 및 RFMO에서 이행 여전히 도전적

- 선박 수 관리를 넘어 실질 어획 통제를 위한 이행 지원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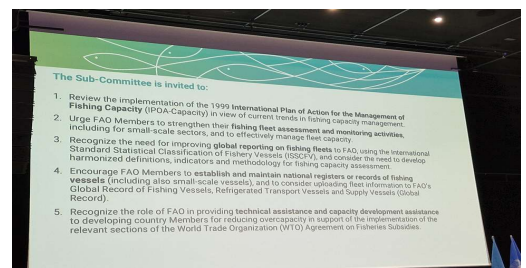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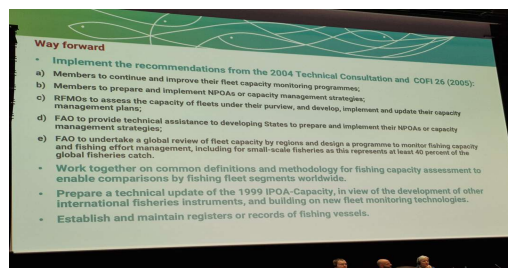
- ◆ 국가·지역·글로벌 선박 등록제 강화 / NPOA-Capacity 수립 촉진 / RFMO 차원의 선단능력 평가 및 제한조치 / FAO Global Record, Flag State Performance Guidelines 활용 / WTO 수산보조금 협정과외 정책적 연계 강화

- 향후 추진 방향

- ◆ 선단 모니터링 지속 개선 / 회원국 국가행동계획(NPOA)수립·이행 강화 / RFMO선단 평가 및 관리계획 수립 촉진 / 글로벌 공통 정의·방법론 개발 / 국가별 선박 등록·기록 체계 구축

- 소위원회 제안 사항

- ◆ IPOA-Capacity 이행 상황 재검토 / 회원국의 선단평가 및 보고체계 강화 촉구 / 글로벌 보고체계 개선 및 ISSCFV적용 확대 / 국가별 선박 등록제 구축 권장 / FAO의 기술지원



- 국가별 주요 논의 내용

주요 의제 논의 사항

- 과잉어획 능력이 자원 고갈 및 IUU 어업의 주요 구조적 원인이라는 점
- 선박 수·톤수 등 단순 지표만으로는 실질 어획능력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인식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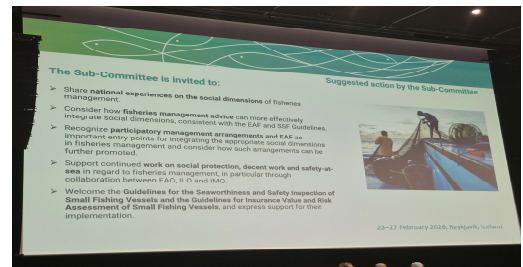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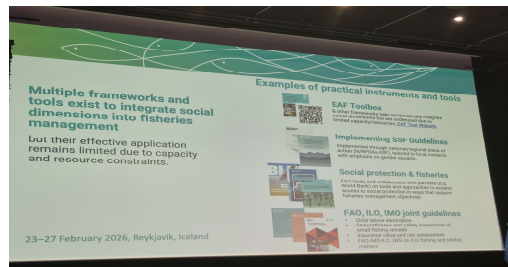
	○ 선단 등록제 강화 및 데이터 정확성·투명성 제고에 관한 논의 필요 ○ Global Record 활용 확대 및 보고체계 개선 필요성에 전반적 동의 ○ 기술 발전이 실질 어획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한 공통 인식 IPOA-Capacity 개정 방식 ○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기술적 검토 후 단계적 접근 선호 ○ (미국) 개정보다 이행·집행 강화 우선 ○ (인도) 실행력을 강조하며 FAO의 적극적 역할 요구 Capacity 측정 방법 및 개념 검토 ○ (아이슬란드) 단순·안정적 지표 활용 경험 공유, 어창 용적 기준 ○ (세네갈) 기술 발전(GPS, FAD 등)을 반영한 정의 재검토 필요 ○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선박 대형화가 반드시 어획력 증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입장 ○ (뉴질랜드) 자원상태와 연계한 capacity 평가 필요성 제기 소규모 어업 및 형평성 문제 ○ (짐바브웨, 남아프리카공화국) 산업형 선단과 소규모 어업 구분 필요 ○ (몰디브, 스리랑카) 어업은 소형·분산형 구조로 등록·모니터링에 현실적 제약 존재 ○ (인도) 개발도상국의 개발 공간(policy space) 보장 필요성 강조 Global Record 확대 범위 ○ (미국, 캐나다, 태국, EU) Global Record 강화 및 정기적 업데이트 강조 ○ (일본, 몰디브) 소형어선까지 확대는 현실적 제약 존재 WTO 수산보조금 협정 연계 ○ (칠레, 영국, EU, 호주) WTO 협정 이행과 capacity 관리 연계 지지 ○ (미국 - 집행 우선, 일부 개도국) WTO 중심 논의에 신중, 수산 관리 중심 접근 강조
업무④	2.25(수) FAO COFI 제2차 수산관리 소위원회(Sub-Committee on Fisheries Mangement) 3일차
수행계획	□ (오전) FAO COFI SCFM Morning: 09:00~12:00 h (CET) - Addressing the social dimensions of fisheries management □ (오후) FAO COFI SCFM Afternoon : 14.00~17:00 h (CET) -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4일차 일정이나, 의제3 조기종료에 따른 논의 시행)
수행결과	□ (의제4) 어업관리의 사회적 측면: Addressing the social dimensions of fisheries management - 사회적 차원의 관리 필요성 ◆ 어업관리는 자원관리뿐 아니라 사람 관리(people management)의 문제 / 소규모어업은 전 세계 1억 명 이상 생계 지원, 관리조치의 사회·경제적 영향 직접적 / 사회적 요소가 초기 설계 단계부터 통합되지 않으면 지속가능성 확보 제한 / EAF, SSF Guidelines 등 기존 국제 규범 내 이미 사회적 자원 포함 - 사회적 차원의 핵심 요소 ◆ 생계·고용, 식량·영양안보, 토착·지역지식, 관습적 어업권, 참여적 거버넌스 / 여성 참여 확대는 관리 효과성과 변혁적 성과에 기여 / 공동관리(co-management)는 지역 책임성과 자원 회복에 긍정적 영향 / 사회보호 및 해상안전은 회복탄력성(resilience) 강화 수단 - 통합 접근 방식 (EAF 및 SSF 기반) ◆ 어업인 조기 참여 및 사회지표 활용 / 관리조치의 사회적 영향·trade-off 평가 병행 / 다차원적 관리목표 설정 및 사회적 보완조치 연계 / 투명성·책임성·제도적 기반 강화 - 기회요인 및 도전과제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 다양한 국제 지침·도구(EAF Toolbox, SSF NPOA 등) 존재 / 소규모어업 사회데이터 부족, 지표 선정 어려움, 역량·자원 제약 지속 / 부처 간 정책 정합성(policy coherence) 및 교차 협력 필요

- 소위원회 제안사항

- ◆ 사회적 차원 관련 국가 경험 공유 / 어업관리 자문에 사회적 요소의 체계적 통합 / 참여적 관리-EAF를 주요 진입점으로 활용 / 사회보호·일자리·해양안전 분야 협력 지속 / 소형어선 안전 및 보험·리스크 평가 가이드라인 이행지지



- 국가별 논의 주요 내용

주요 의제 논의 사항
○ 생물학적 지속가능성이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의 전제 조건 ○ 사회적 차원을 어업관리 전 주기(현황분석-목표설정-이행-평가)에 통합해야 한다는 인식 공유 ○ 참여적 거버넌스 및 공동관리(co-management)가 정책 수용성과 규정 준수에 중요 요소 ○ 소규모·전통 어업인의 생계·식량안보·형평성 보장 또한 중요 ○ 안전·노동·사회보호를 어업관리의 핵심 사회 요소로 포함 필요 ○ 사회지표 및 사회데이터 체계 강화 필요성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
참여적 거버넌스 및 공동관리
○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과학작업반 및 의사결정 구조에 이해관계자 직접 참여 모델 운영 ○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과학 기반 자문 및 의사결정 + 산업계 협의 절차 병행 ○ (세네갈) 참여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대 성과는 제한적, 사회보장 병행 필요성 제기 ○ (남아공, 캄보디아) 공동관리 및 지역 기반 조직 강화 강조
사회보장·생계 보호 및 완충장치
○ (세네갈) 휴어기·어구 제한 시 생계 지원 체계 필요, 협동조합 모델 재도입 추진 ○ (필리핀) 소규모 어업인 대상 사회 보호 프로그램 및 기상 지수 기반 보험 도입 ○ (브라질) 'Seguro-Defeso' 제도 통해 산란기 보조금 지원 ○ (태국, 인도네시아) 어업인 보험·직업훈련·대체소득 프로그램 운영
안전·노동·인권 기준
○ (EU, 영국, 뉴질랜드, 남아공 등) FAO-ILO-IMO 공동작업반 활동 지지 ○ (EU, 영국, 남아공 등) 2012 케이프타운 협정(Cape Town Agreement) 비준 촉구 ○ (EU, 미국)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문제에 대한 대응 강화 요구 ○ (EU, 영국, 뉴질랜드, 남아공, 캄보디아 등) 소형어선 안전 점검 및 보험 가이드라인 긍정, 개도국 대상 역량 강화 필요성 강조

□ (의제5) 지역수산물관리: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 지역수산물관리기구 기능과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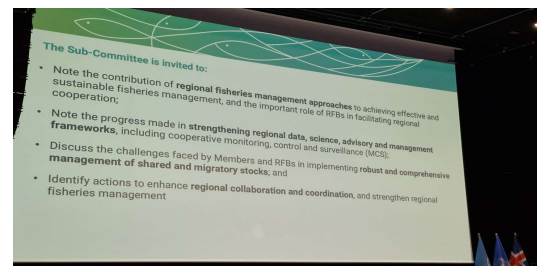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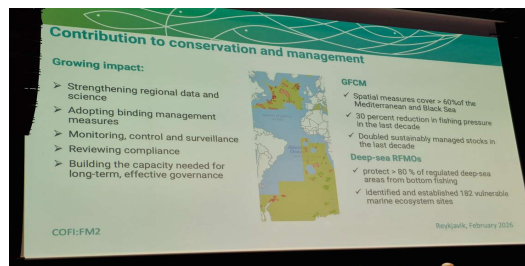
- ◆ 지속가능한 지역 중심 어업관리 기반, 과학 자문 체계 발전, 협력적 MCS 체계 강화

- 지역수산물관리의 현황

- ◆ 전 세계 50개 이상 RFB 운영(해양, 내수면, 양식 포함)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 RFMO의 확대 및 제도화 진전: 공해 어획량의 약 95%가 RFMO 관할 하에서 이루어짐
- **보전 및 관리 성과 및 주요 사례**
 - ◆ 지역 데이터 및 과학 역량 강화 / 구속력 있는 관리조치 채택 확대 / MCS 체계 발전 / 준수 (compliance) 검토 메커니즘 강화 / 장기적 거버넌스 역량 구축
 - ◆ GFCM(지중해수산위원회): 지중해·흑해 60% 이상 공간관리 적용 / 지속가능 자원 비율 2배 증가
 - ◆ 심해 RFMO: 규제 해역 80% 이상 저층어업 보호 / 취약해양생태계(VME) 182개소 지정
 - ◆ 참치 RFMO: 참치 자원의 87% 지속가능 상태 / 남방참다랑어(SBT) 회복 사례
- **주요 도전과제 및 RFMO 적용 공백**
 - ◆ 과학 데이터 및 정보 부족 / 인적·기술·제도적 역량 제약 / 기후변화에 따른 자원 이동 / 회의 빈도 및 의사결정 속도 문제
 - ◆ 일부 공해 해역에서 관리공백 존재: 지역 데이터 수집 체계 및 공동 자원평가 메커니즘 부족
 - ◆ 관리 미흡 어종: 소형 참치, 연골어류(상어·가오리)
 - ◆ 남서대서양 오징어 사례: 약 57만 톤, 전 세계 해양 어획량의 약 0.7%, 대부분 아르헨티나 인근
- **새로운 국제 체계와 RFMO의 역할 변화**
 - ◆ BBNJ 협정 및 WTO 수산보조금 협정 등장: RFMO 책임 확대, 데이터·과학·준수 기능 강화 요구, 중복 방지 및 상호보완성 확보 필요, 추가적 역량·재원 확보 필요
- **향후 강화 방향**
 - ◆ 지역 차원의 MCS 협력 확대 / 데이터 공유 강화 및 표준화 / 공동 자원평가 체계 구축 / 역량 강화 및 조정에 대한 지속적 투자



- 국가별 논의 주요 내용

주요 의제 논의 사항
○ RFMO 체계의 핵심적 역할 재확인 및 기존 체계 강화 강조 ○ 과학기반 관리 및 데이터 수집·공유 역량 강화 필요성 ○ MCS(모니터링·통제·감시) 및 IUU 대응 강화 ○ 공해 관리 공백 해역 대응 필요성 ○ BBNJ 협정과 RFMO 간 비침해(non-undermining) 원칙 강조 ○ 개발도상국의 참여 역량 및 재정 지원 확대 필요 ○ 보고의무 행정 부담 완화 및 조화(harmonization) 필요성
RFMO의 역할 및 비규제어업(공백 관련)
○ (러시아) 현행 RFMO 체계의 효과 평가, 새로운 병렬 구조 창설보다 기존 체계 강화 필요 강조, 기능 중복 방지 및 조정 개선 주장 ○ (EU) RFMO 해양 거버넌스의 핵심 축으로 평가 과학·투명성·집행 신뢰성 강화 요구 ○ (캐나다) RFMO는 생태계 접근의 초석, 수확전략 및 관리절차 발전 지속 강조 ○ (브라질) 남서대서양 지역에 새로운 지역적 관리 필요성 제기, FAO 헌장 제6조에 따른 지역협정 검토 ○ (인도) 일부 북서 인도양 공해는 RFMO 관할 밖, 점진적 협력 강화 필요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아이슬란드) RFMO 미적용 해역에 대한 지역 협력 필요성 인정, 단, 정치적 분쟁 고려 필요 ○(일본) RFMO 없는 해역에서 데이터 수집 우선 접근 제안 과학·데이터·자원평가 강화 ○(미국) 오징어 어업 데이터 공백 분석을 위한 FAO 전문가그룹 제안 ○(캐나다) 혼획 및 비관리 어종 데이터 강화 필요, 미국 제안 지지 ○(아이슬란드) 과학자 참여 및 데이터 신뢰성 확보 중요, 자문체계의 적시성 강화 필요 ○(태국) RFMO별 데이터·보고 시스템 정합성 문제 제기, 기술지원 및 시스템 통합 지원 요청 ○(인도네시아) GIES(글로벌 정보교환 시스템)·전자보고 시스템 간 비정합 문제 제기, FAO의 시스템 통합 지원 필요성 강조 MCS 및 IUU 대응 ○(일본) PSMA 및 준수협정 요소의 RFMO 내 운영 필요, 공해 승선·검색 제도 도입 확대 지지 ○(뉴질랜드) 태평양 지역 MCS 협력 강화 사례 제시 IUU 대응을 위한 지역적 협력 강조 ○(캐나다) 공해 승선·검색 제도지지, 환적 옵서버 프로그램 진전 사례 언급 ○(아르헨티나) 지역 협력 통한 IUU 대응 경험 공유, IUU 대응 역량 강화(정보교환 등) 필요성 강조 BBNJ-WTO 등 신 국제체제와 RFMO 관계 ○(노르웨이) BBNJ 이행 시 RFMO 역할 명확화 필요, PrepCom(준비위원회) 참여 독려 ○(캐나다) BBNJ 제5.2조 비침해 원칙 강조, ABMT(구역기반관리도구)·EIA(환경영향평가)는 RFMO 보완 ○(뉴질랜드) BBNJ와 RFMO 간 적극적 조정 필요, 일관된 접근 촉구 ○(일본) 환경협약(MEAs)에서 어업 분야 의견 반영 부족 우려, 국내 의사결정에 수산당국 참여 필요 ○(EU) 생물다양성 협약과의 조정 필요 생태계 기반 접근 확대 요구
업무⑤	2.26(목) FAO COFI 제2차 수산관리 소위원회(Sub-Committee on Fisheries Mangement) 4일차
수행계획	□ FAO COFI SCFM Side Event 개최 Thursday, 26 February 2026 🕒 12:00 – 13:15 📍 Silfurberg room (Plenary, second floor) <i>“Global Trawl and Jig Fisheries - Cooperating and sharing information to better manage distant water fisheries outside RFMO jurisdictions”</i> This side event will present and discuss a new collaborative analysis of global trawl and jig fisheries and recent increases in fleet capacity and provide insights into the development of cooperative approaches to management for fisheries outside the jurisdiction of RFMOs, including the use of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s and other tracking data.
수행결과	□ Side Event(부대행사) 개요 - 행사명: RFMO 관할 밖 원양어업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협력 및 정보 공유(트롤 및 채낚기) - 공동주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호주 울런공대학교(ANCORS) - 일시: 2026.2.26.(목) 12:00-13:15 - 장소: Silfurberg Room (Harpa Conference Center, Reykjavik) / SCFM 행사장 - 운영형태: COFI 수산관리 소위원회(SCFM) 연계 부대행사 □ 개최 목적 - 전 세계 트롤 및 오징어 채낚기 어업에 대한 공동 연구 결과를 공유 - 최근 증가하고 있는 원양선단 어획능력(fleet capacity) 동향을 분석 - RFMO 관할 밖 공해 수역 어업의 협력적 관리 방안 논의 □ 참여기관(발표 및 운영)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호주 울런공대학교(ANCORS), 글로벌 피싱워치(Global Fishing Watch), 일본 정책자문단(AFC, Masa), 상해 해양대학교(Shanghai Ocean University)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청중(대표단 및 옵서버)

- 미국, 캐나다, 영국, 아르헨티나, 중국, 일본, 호주 필리핀, 아이슬란드, 짐바브웨, World Bank, Pew, WWF, MSC 등

□ 발표 주제 및 주요내용

자료	주제 및 발표자	주요내용
	· 제목: Strengthening Cooperation and Management of Unregulated Fisheries · 발표자: 정명화(KMI)	부산 비규제어업 워크숍 주요내용 / RFMO 부재 공해 수역 어업 활동 증가 및 관리 공백 / 주요 원양 어업국 정책 변화 / 국제규범 변화 및 데이터 기반 협력 필요성
	· 제목: Global Fishing Watch data for high seas squid fisheries · 발표자: Michelle Kuruc (Global Fishing Watch)	남서대서양 중국 오징어 선단 규모 소개 / 중국 원양어업 관리체계 / VMS·전자로그북·모라토리엄 등 공해 어업 관리 조치
	· 제목: Monitoring and management of Chinese flagged squid fleets in the Southwest Atlantic high seas · 발표자: Jiangfeng Zhu (Shanghai Ocean University)	Global Fishing Watch 데이터 분석 체계 / AIS 및 위성 데이터를 활용한 공해 오징어 어업 활동 분석 방법 / 주요 공해 오징어 조업 해역 및 글로벌 선단 이동 패턴
	· 제목: Cooperating and sharing information to better manage distant water fisheries outside RFMO jurisdictions · 발표자: Quentin Hanich (ANCORS, University of Wollongong)	공해 어업 관리 관련 국제법적 배경 / RFMO 및 협력체계 역할 / SCTB(Standing Committee on Tuna and Billfis) 사례 기반 과학협력 중심 관리체계 발전 가능성 제시

□ 토론 및 코멘트

- 연구협력 네트워크 및 공동연구 의의 및 향후 활용방안
 - ◆ 정명화(KMI): 공동연구를 통한 비규제어업 관리 논의 지원 필요성 언급, 과학적 근거 제공 및 데이터 갭 축소, 연구협력 기반 조성을 통해 향후 공해 어업 관리 거버넌스 논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 필요성 설명
- 공동연구 결과 활용 및 보고서 발간 계획 질의
 - ◆ Quentin Hanich(University of Wollongong) : 현재 연구 초기 단계(progress stage)로, 2026년 6월 부산 세미나 이후 예비 보고서 공개 계획 제시, 공동 검토 후 자체 보고서 형태 발간 추진 계획 설명
- KMI 태평양 포럼 개최 관련 소개 및 협력 요청
 - ◆ 박찬엽(KMI): '26년 6월 부산에서 비규제어업 국제세미나와 더불어 태평양 수산포럼(남태평양.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라틴아메리카 포럼 통합) 개최 계획 소개, 국제협력을 위한 글로벌 논의 플랫폼 구축 취지 설명
- 공동연구 파트너 확대 가능성 질의
 - ♦ Quentin Hanich(University of Wollongong) : 오징어 자원 평가 관련하여 영국,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관심 국가 및 학계 전문가들의 적극적 참여를 환영하며, 향후 전문가 풀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 검토 예정

